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류연규** · 김영미***

요약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젠더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수준, 인식의 지형과 균열지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누가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수성향이 중도성향에 비해, 평등하고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젠더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둘째,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과 젠더갈등인식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남녀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여성은 젠더불평등인식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에 반해 남성의 젠더갈등인식은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과 무관했고, 20대, 대졸이상, 보수적 정치성향,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갈등해소 전략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주요어: 젠더갈등인식, 젠더불평등인식, 성별 조절효과

* 이 연구는 정해식 외(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논문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분석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제1저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yqryu@stu.ac.kr)

*** 교신저자,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dezember26@gdsu.dongseo.ac.kr)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젠더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수준, 인식의 지형과 균열지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젠더갈등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젠더갈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가시화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등의 사회갈등 이슈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다.¹⁾ 그동안 젠더이슈의 경우, 힘의 균형을 전제하는 ‘갈등’ 개념보다는 일방적인 억압과 차별, 불평등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변화들 즉, 개인주의와 평등 가치의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부장적 젠더질서와 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에 기인한다(이재경, 2013: 96).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기존 가부장적 질서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민법 개정안 통과까지, 호주제 폐지와 존치를 둘러싸고 유림 등 남성 집단과 여성운동 진영 간에 치열한 갈등이 존재했다. 1999년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둘러싸고 젠더갈등²⁾이 발생했고,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불씨는 2017년 10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의 국방의무 부과 요구’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신경아, 2017:16). 정치, 고용 등 영역에서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역차별 논쟁,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개정 이후 성폭력,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 2000년대 이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분업과 여성의 이중노동을 둘러싼 인식차이와 갈등 등 한국사회의 젠더갈등은 역설적이게도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 및 확대와 함께 심화되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젠더갈등이 증폭된 것은 2015년 전후이다. 2015년 초 트위터에서 진행

-
- 1)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를 연구한 송복(1997), 서문기(2004) 등의 연구들은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계층(계급)갈등, 환경갈등, 세대갈등 등을 대표적인 사회갈등으로 규정했다. 한국 사회갈등 수준과 구조를 분석한 이병량 외(2008)의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지역갈등(호남-영남, 도시-농촌, 서울-지방), 환경갈등, 교육갈등, 경제갈등(노사, 계층갈등), 이념갈등(진보-보수, 친북-반북), 세대갈등, 정치갈등, 성 갈등 중 성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이병량 외, 2008:55-56).
 - 2) 군가산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군대를 가지 못하는 남성에게 대한 차별금지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징병제도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 투명하지 못한 징집절차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이재경, 2013: 98).

된 해시태그 페미니스트 선언과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2018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화역 시위 등 여성이 당한 폭력이나 차별을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더불어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backlash)과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혐오발화가 증가하고 있다(정승화, 2018).

국가미래연구원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 SNS 등에서 화제가 된 이슈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이 주목한 사회이슈 상위 10개 중 6개가 젠더이슈였고, 남녀갈등 담론 관련 언급이 전체의 70%(2,409만8천 건)에 달해 이념갈등(14.8%), 세대갈등(5.1%), 노사갈등(4.5%)을 압도했다.³⁾ 2018년 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질 갈등으로 계층갈등(32.2%) 다음으로 젠더갈등(19.1%)이 꼽혔다. 특히 20대는 50.5%가 젠더갈등을 지목했다.⁴⁾ 여러 연구자들은 최근의 광범위한 젠더갈등 양상에 대해 “페미니즘의 재부상”(김보명, 2018: 2), “젠더 전쟁의 시대”(신경아, 2017: 16),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등의 현상으로 개념화하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실재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실증적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015년 전후 시점을 중심으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김보명, 2018; 박정훈, 2019; 신경아, 2017; 손희정, 2015; 이나영, 2016; 이윤정, 2019; 이종임 외, 2019; 주은혜·백영민, 2018; 천정환, 2016 등), 젠더갈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젠더갈등 개념에 대한 합의 부재, 기존 이론 적용의 한계, 젠더갈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data)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젠더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누가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다양한 차원의 인식은 젠더갈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부상한 젠더갈등의 미시적 기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갈등 연구들은 젠더갈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젠더 연구들은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의 현상을 분석, 해석하는 것 위주였다. 이 연

3)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780개 이슈를 선정했고, 총 1억 1957만여 개의 반응이나 언급을 분석한 결과이다.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남녀갈등에 관한 글의 건수가 31.2%였던 것과 비교해 폭발적인 증가이다.

중앙일보 2019년 4월 17일자 기사, “이념갈등 위에 젠더갈등, 현 정부서 6배로”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42964>. 2019년 12월 8일 검색)

4) 19-70세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임. 한국일보 2019년 1월 2일자 기사, “계층·젠더 갈등, 폭발력 더 커졌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42964>. 2019년 12월 8일 검색)

구는 사회갈등의 한 유형으로서 젠더갈등의 미시적 기반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최근의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주로 청년세대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은 젠더갈등의 문제를 20대 청년의 문제로 프레임 하는 경향을 보인다.⁵⁾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 국민 대상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젠더갈등 현상이 특정 집단의 문제인지, 보편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갈등 속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구조화된 가부장적 질서와 규범 속에서 젠더갈등은 사적이고 내재적인 갈등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젠더갈등을 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젠더규범과 질서의 균열지점을 가시화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젠더갈등 해결, 새로운 젠더규범으로의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갈등 저변에는 여전한 가부장적 질서와 규범에 대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과 이미 차별은 해소되었으며 여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들 모두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인과적 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젠더갈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대결'로 프레임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identity)이 젠더갈등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젠더갈등인식이 성별에 의해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은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젠더갈등 행위⁶⁾가 아닌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향후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식에 내재된 잠재적 갈등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량 외, 2008). 갈등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 권력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에서 발생한다(서문기, 2004). 젠더갈등은 여기에 더하여 '(불)평등'의 의미와 수준을 둘러싼 '상징적' 차원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폭발력은 다른 사회갈등보다 더 강할 수 있다(Bouta et al., 2004). 따

5) 2019년 2월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을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고, '20대 남성의 피해자성과 인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와 남성차별 주장들을 기사화했다(박정훈, 2019).

6) 사회갈등 측정을 위해 갈등 사건(예컨대 젠더관련 시위 횟수)의 집계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잠재적 갈등을 측정할 수 없고, 갈등이 명시적인 투쟁 행위로 표출되어야만 갈등이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박준·정동재, 2018).

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젠더불평등, 젠더갈등을 둘러싼 인식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갈등해결, 새로운 젠더관계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젠더갈등의 개념과 양상

베버(Weber, 1978)는 갈등이 한 집단 혹은 당사자가 반대 집단 혹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대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갈등의 차원, 원인, 전개양상 등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갈등의 원인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에서부터 이념 등 가치관의 충돌, 실제 현실과 인식 간의 차이 등 다양하다. 갈등의 양상도 개인적 차원의 시기, 질투에서부터 투쟁, 혁명과 같은 집단행동까지 폭넓게 나타난다(서문기, 2004).

사회갈등의 개념정의를 따라 젠더갈등을 정의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권력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기존의 성역할 규범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개인들 간에, 가족 내에서, 사회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젠더갈등의 양상은 법 제·개정 및 정책 시행을 둘러싼 찬반 의견대립과 긴장상황에서부터 SNS 등 온라인상의 적대적 혐오발화, 신체적·성적 폭력행위, 디지털 성범죄, 집단적 시위와 충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젠더갈등의 차원, 원인, 양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젠더갈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젠더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이고, 가장 민감한 갈등 관계이다(Gupta and Shuzhuo, 1999). 친밀한 사적영역에서의 일상적 습관, 태도, 취향으로 인한 개인적 갈등에서부터 젠더질서, 규범의 변화와 관련된 법 제·개정을 둘러싼 사회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친밀한 사적관계에 기반을 둔 속성으로 인해, 그리고 사회구성원 다수가 갈등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갈등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변화순 외, 2005:3-10) 이제까지 젠더갈등은 가시화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의 젠더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젠더갈등 개념은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제도 폐지, 성매매 규제와 성폭력 처벌강화법 제·개정, 고용 등에서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둘러싼 남녀의 이해관계 대립, 갈등’으로 정의되었다(변화순 외, 2005: 이제

경, 2013). 이 연구들은 특정한 젠더이슈들의 찬성집단, 반대집단을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양상을 분석했다. 이때 젠더갈등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을 둔 불평등한 권력구조와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와 그에 대한 저항 간의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병량 외(2008)의 연구는 사회갈등의 한 유형으로 '젠더갈등(gender conflict)'을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람들과 가부장적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젠더갈등인식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젠더갈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젠더평등,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backlash)이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남녀가 동등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젠더갈등을 유발했다면, 최근에는 남녀가 이미 동등하고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젠더갈등을 유발하고 있다(Faludi, 1991; Lee, 2019). 팔루디는 미국사회의 백래쉬(backlash) 현상을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시작된 페미니즘, 젠더평등에 대한 대항(reaction)'이라고 규정했다. 뉴욕타임즈, LA 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조차도 현재 여성세대를 '축복받은 세대'로 묘사했고, 페미니즘 운동에 의해 스스로 희생되었다고 믿는 남성들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백래쉬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Faludi, 1991; Lee, 2019 재인용).

2015년을 전후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 역시 백래쉬(backlash)로 유발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들이 상당하다(신경아, 2017; 김보명, 2018; 이윤정, 2019 등). 이 연구들은 생존경쟁과 고용 및 삶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젠더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인 남성들이 직접적인 피해나 적대적 경험은 없었지만 보수적인 성 가치에 기대어 분노와 혐오를 여성에게 투사하고 여성혐오, 디지털 성범죄 등을 유발하면서 젠더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변화된 젠더갈등은 특정한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권력구조 변화를 둘러싼 갈등이라기보다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젠더갈등을 분석할 때, 젠더불평등에 대한 현실인식 차이, 기존의 성역할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젠더갈등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갈등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성평등을 향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젠더갈등 인식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갈등해소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갈등에는 권력관계, 사회제도, 섹슈얼리티에 이르는 총체적인 이슈가 포괄되어 있다. 젠더갈등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젠더갈등의 다양한 이슈와 복합적인 차원을 구성하기보다는 단순화하여 젠더갈등을 여성과 남성 집단 간

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인식수준, 인식지형과 균열지점,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이밍은 단순한 성대결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젠더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적 이슈와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정체성으로서의 젠더와 갈등인식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역할과 태도, 행동 등을 내면화하고, 이렇게 학습된 행동은 성 정체성을 형성한다(변화순 외, 2005: 26).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젠더, 연령, 인종 등의 사회정체성이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Sherif(196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는 자기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만일 내부집단에서 박탈감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회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2019 재인용). 깬슨(Gamson, 1992) 역시 ‘우리(we)’와 ‘그들(they)’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집단 정체성이 사회운동을 촉발시킨다고 보았다.

젠더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고, 남성과 여성은 사회갈등 상황이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상이한 관점 혹은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젠더불평등과 젠더갈등의 경우, 여성들이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Lee, 2019). 이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맥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젠더불평등과 차별의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백래쉬(backlash) 현상과 같이 직접적인 차별경험과 무관하게 집단 내부에서의 낮은 상대적 지위로 박탈감을 느낄 경우, 이것이 젠더갈등을 촉발하고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성차별 경험과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로가 남성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주은혜, 백영민(2018)은 집단정체성으로서의 젠더가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는데, 여성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별도의 의식적 정보처리과정 없이 정서적 공감과 이해를 통해 미투운동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한국 젠더문화의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이라는 인지적 차원의 이해를 거쳐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코노버(Conover, 1988)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지지도가 남성의 경우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 등 인지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치적 공감과 같은 정서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젠더는 한 개인의 사회정체성을 설명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사회경제적 지위, 이념과 가치 등 다른 개인적 속성들이 더 설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젠더(gender)는 세대, 계층, 지역, 이념 등 다른 사회·인구학적 범주와 교차(intersect)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이재경, 2013:95), 그 개념과 역할규정이 시간의 흐름과 특정 사건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변화순 외, 2005:53). 가부장적 규범이 강고한 사회에서는 성별을 사회정체성으로서의 젠더와 동일하게 여겨도 무방하나, 성평등주의 확산으로 기존의 젠더규범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는 남성과 여성 내부의 균열을 초래한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성을 연구한 마경희 외(2018 :69)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남성의 23.8%는 전통적 성별분업과 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성을 거부하고 가사분담,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 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비전통적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는 38.8%, 30대는 26.1%가 비전통적 남성성을 보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젠더갈등인식이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 성역할태도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 등 젠더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맥락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연령, 소득계층, 거주 지역, 정치적 이념 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 여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3) 한국의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의 젠더갈등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수연 외(2006)의 연구는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와 직장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성평등의식이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는데, 여성, 저연령, 고학력, 미혼이 높은 성평등의식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젠더갈등인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급격히 변화한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갈등 국면을 이 연구를 통해 유추하기에는 한계적이다.

이병량 외(2008)의 연구⁷⁾는 '젠더갈등(gender conflict)'에 대한 인식수준을 심각성 인식, 우선적 정책대응 필요성 인식수준으로 측정했는데, 다른 사회갈등과 비교해 모두 낮았다. 그리고 지역별, 세대별, 사회계층별(소득, 주관적 사회계층, 학력, 직업), 정치이념별로 갈등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는데, 기술적 분석에 그쳤다. 안상수 외(2015)의 연구는 청년남성을 대상으

7) 2005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로 젠더가치 갈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청년남성에 대상을 한정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젠더갈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Lee(2019)의 연구는 젠더갈등인식 영향요인을 규명한 거의 유일한 연구인데, 2016년 실시한 한국사회통합서베이 자료를 활용했다.⁸⁾ 분석결과, 남성들은 보수주의(conservative)에 가까울수록, 여성들은 자유주의(liberal)에 가까울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9)는 정치이데올로기와 젠더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 경험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식과 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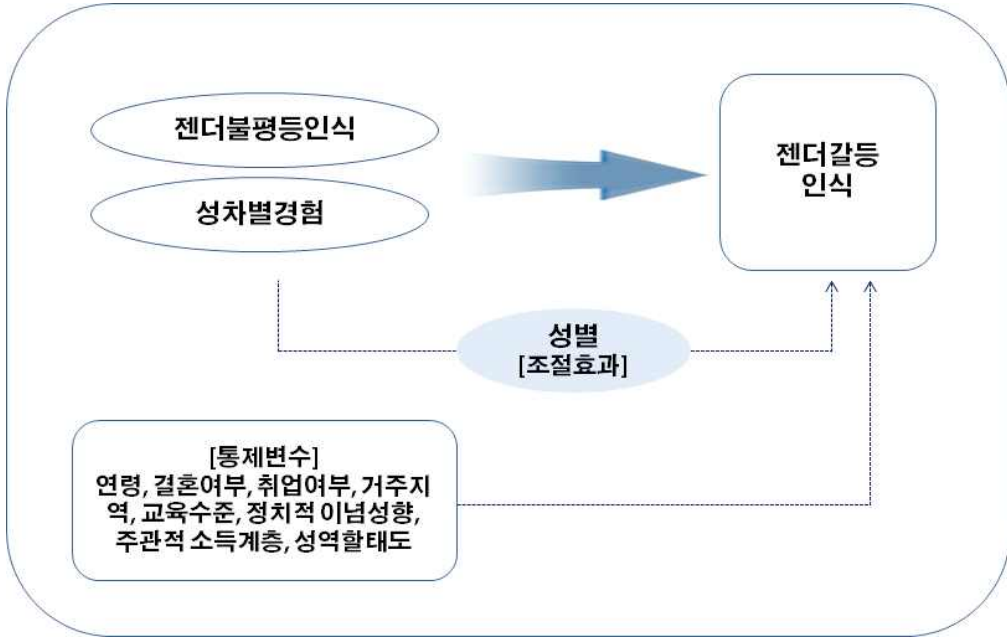
젠더불평등은 그 구조와 현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젠더불평등은 노동시장, 사회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불평등 상황을 통해서도 인식된다. 따라서 젠더불평등 인식은 가정 내 역할, 직장 내 역할, 취업과 승진의 기회, 노동시장 임금체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젠더불평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측정한다.

젠더불평등인식이 성역할이나 사회적 기회, 구조에 의한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면, 성차별 경험은 가족, 노동시장 제도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하,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 중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경험하는 욕설, 무시, 비하 등의 경험 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지만 개인의 젠더 감수성에 따라 경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일상적 현상이다. 최근 젠더갈등 이슈로 주목받은 미투운동, 성폭행사건, 몰카, 디지털성범죄 등은 일상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이상의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젠더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8)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이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사회통합서베이」 자료를 분석했다. '당신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젠더갈등인식을 정의하고, 4점 척도로 측정했다.

[그림 1] 분석모형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가치와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한다. 연령의 경우, 현재 젠더갈등 상황을 20대 청년의 문제로 규정하는 최근 연구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대와 30대 이상으로 구분해 젠더갈등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젠더갈등인식에 연령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019년 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조사 결과’⁹⁾에 따르면, 20대 남성(특히, 19-24세)은 페미니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었다. 군복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승진, 채용에서 여성차별 존재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정훈(2019:211)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20대 남성’의 코호트 효과(세대효과)가 아닌, 군복무와 취업 등의 생애주기와 맞물린 연령효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25-29세, 30대로 가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직장, 사회에서의 구조적 젠더불평등을 이해하기에는 스스로 혹은 또래 여성들과의 상호관계에서의 경험과 인식의 폭이 협소하고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결혼경험의 경우, 가족 내 젠더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연령효과와 결부되어 직장, 사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회 내에서의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내 역할을 둘러싼 일상적 갈등은 예민하게 인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개인적 갈등과 사회갈등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에 비해 젠더갈등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수도 있다. 고용지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성평등인식을 높이고 노동시장, 사회 내에서의 차별, 불평등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신경아(2017), 초도로우(Chodorow, 1979) 등이 지적한 대로 주변적 위치에 놓인 경우, 즉 미취업자가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 역시 유사하게 저소득층이 젠더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최근 젠더이슈를 둘러싼 집단적 행동, 시위 등이 강남역, 혜화역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젠더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불평등문제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경우, 고용지위, 주관적 소득계층과 마찬가지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저학력 남성들이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념 성향의 경우, Bobbio, Canova, Manganelli(2010)는 보수주의자가 불평등한 현실을 수용하고 감내하는 데 반해,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한다고 보았다. 이는 갈등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외부 집단(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적대를 유지하며 관용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Duckitt, Wagner, Du Plessis & Birum, 2002). 역사적으로 젠더평등을 위한 노력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가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념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한국사회의 젠더갈등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한 Lee(201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보수적일수록 여성은 자유주의에 가까울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기존의 젠더규범에 반대하는 평등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젠더갈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¹⁰⁾ 원자료¹¹⁾이다. 모집단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 남녀이다. 이 조사는 500개 집계구¹²⁾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해 각 집계구당 8개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4,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표본 단위 및 분석단위는 가구 내 개인 1인이고,¹³⁾ 표본 크기는 전국 500개 집계구 내 4,000명이며, 최종 3,873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가구 및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 경제 상태, 행복 및 만족도, 사회적 자본,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적 성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계층 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공공갈등에 대한 문항들이다. 그리고 젠더갈등과 관련해 젠더불평등인식과 젠더갈등인식, 성차별 경험 및 원인, 성역할태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2) 분석방법

첫째, 조사 대상자의 젠더갈등 및 젠더불평등인식 및 경험 관련 특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둘째, 젠더갈등인식 수준에 대한 다양한 요인 즉, 젠더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젠더

10)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섯 번째 조사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사회통합과 행복',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국민인식',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에 대한 주제에 이어 2018년에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조사되었다. 사회갈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선행 조사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개발하였다(정해식 외, 2018:19).

11) 이 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문서번호 제2018-28호, 2018.6.27.)의 연구승인을 획득하였다(정해식 외, 2018:22).

12)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서비스 용도로 별도 선정한 단위로서 평균적으로 약 200개 가구가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된다. 집계구는 조사구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사구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집계구 내 세대수, 가구 수, 1인가구 수(비율), 아파트 수(비율)의 정보가 제공되어 확률비례 표집이 가능하다.

13) 가구 내 최종 응답자는 무작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생일법(1~12월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가 가구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정해식 외, 2018:23).

관련 인식이나 경험 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젠더불평등인식과 일상생활의 성차별 경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조절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분석 대상 집단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성별 집단별로 젠더갈등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에 대해 각각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 투입 전후 모델의 결정계수(R²)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Aiken & West, 1991). 이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독립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변수로 전환하였다(Cohen et al., 2003). 성별 조절효과가 존재할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변수가 억제하는지 혹은 상승시키는지 상호작용 양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절변수의 특정한 조건값 또는 평균값 ± 1 표준편차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식화하는 단순기울기검증법이 권장된다(Aiken & West, 1991; 김소정, 2016 재인용).

2) 분석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젠더갈등인식’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자료에서는 ‘갈등이 매우 심하다’가 1점,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가 4점이었으나, 분석에서는 이를 역점수화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 경험’이다. 첫째, 젠더불평등인식은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① 가정 내 역할, ② 회사 내 역할, ③ 취업 및 승진, ④ 임금 수준 네 가지 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수준을 5점 척도(‘전혀 불평등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불평등하다’(5점)까지)로 묻고 응답값을 합산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다.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크론바 알파(chronbah's α) 값이 0.817로 신뢰도가 높았다.

둘째, 성차별 경험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성차별적 경험수준을 의미한다. ① 외모(용모, 복장, 신체적 조건)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② 대중매체(TV 드라마·예능, 라디오 프로그램, 계

임 등)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성역할 고정관념 언급, 외모 비하 발언 등), ③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④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의 경험의 빈도를 5점 척도¹⁴⁾로 응답하게 하고, 응답값을 합산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 알파(chronbah's α) 값은 0.755로 높게 나타났다.¹⁵⁾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성별로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4) 통제변수

연령대, 결혼경험, 취업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정치적 이념성향, 주관적 소득계층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 이상으로 구분된 더미 변수이고, 결혼 경험은 결혼의 경험이 있는 경우(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와 없는 경우의 더미 변수이다. 취업 여부 변수는 피고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와 무직, 실업 등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 더미 변수이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로 구분한 더미 변수이다. 교육수준 더미변수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내용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젠더갈등인식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
독립변수	젠더불평등인식	5점 척도 4개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고 인식
	성차별 경험	5점 척도 4개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 경험 높음
조절변수	성별	더미변수 - 남성 0, 여성 1
통제변수	연령대	더미변수 - 20대 0, 30대 이상 1
	결혼경험	더미변수 - 미혼 0, 결혼 경험 있음(사실혼, 이혼, 사별 포함) 1
	취업여부	더미변수 - 비취업 0, 취업(피고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 1
	거주지역	더미변수 - 비수도권 거주 0, 수도권 거주 1
	교육수준	더미변수 - 고졸 이하 0, 대졸 이상 1
	정치적 이념성향	5점 척도(매우 보수 1, 대체로 보수 2, 중도 3, 대체로 진보 4, 매우 진보 5)를 중도를 기준으로 진보, 보수 2개 더미변수 생성
	주관적 소득계층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계층을 상층으로 인식
	성역할 태도	4점 척도 5개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

14) 매일(5점), 일주일에 1-2번(4점), 한 달에 1-2번(3점), 1년에 1-2번(2점), 경험한 적 없다(1점)

15)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체 타당도 검증(Bartlett의 X^2 검정) 결과 젠더불평등인식($X^2=407.354$, $p<.001$), 일상생활성차별 경험($X^2=55.404$, $p<.001$) 척도들은 각 하위 요소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하위 요소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어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성역할태도는 5개 문항¹⁶⁾에 대한 동의수준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 알파(chronbah's α) 값은 0.694로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¹⁷⁾ 정치적 이념 성향은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중도(3점)를 기준으로 진보적 정치성향(4점, 5점) 더미와 보수적 정치성향(1점, 2점)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하층 1점, 중하층 2점, 중간층 3점, 중상층 4점, 상층 5점)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서열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분석변수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와 성별차이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포와 기술통계 분석결과

먼저, 응답자들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남녀 비율은 유사하고(남성 50.8%, 여성 49.2%),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는 19.0%이다. 70.7%가 취업 중(피고용,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50.3%이고, 고졸 이하가 55.9%로 절반 이상이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하층 이하가 52.7%로 절반 이상이고, 이념적 성향에 따른 분포는 보수 24.8%, 중도 46.1%, 진보적 29.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 분포를 교차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20대 이하, 30대에서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대졸 이상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았다. 비혼 집단의 경우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남성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취업자는 남성 비중이 높고, 비취업자 집단에서는 여성 비중이 약 38% 포인트 높았다. 진보적 이념집단에서는 남성비율이 높았고, 보수와 중도의 경우 여성 비율이 약간 높았다. 중간층 이하 소득집단에서는 남성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중상층 이상 소득집단에서는 남성비율이 19% 포인트 높았다.

16) ①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면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② 대부분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다, ③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④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⑤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17)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체 타당도 검증(Bartlett의 X^2 검정) 결과 성역할태도의 하위 요소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어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X^2=131.230(p<.001)$),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873	100.00	1,967	50.8	1,906	49.2
연령대	20대 이하	734	19.0	412	56.1	322	43.9
	30대	722	18.7	370	51.2	352	48.8
	40대	826	21.3	428	51.9	397	48.1
	50대	822	21.2	382	46.5	440	53.5
	60대 이상	768	19.8	375	48.8	394	51.2
결혼경험	없음	1,068	27.6	680	63.7	388	36.3
	있음	2,805	72.4	1,287	45.9	1,517	54.1
취업여부	취업	2,738	70.7	1,617	59.1	1,121	40.9
	비취업	1,135	29.3	350	30.8	785	69.2
거주지역	수도권	1,948	50.3	976	50.1	972	49.9
	비수도권	1,924	49.7	991	51.5	933	48.5
교육수준	고졸 이하	2,128	55.9	1,018	47.8	1,110	52.2
	대졸 이상	1,680	44.1	921	54.8	759	45.2
정치적 이념성향	보수적	961	24.8	465	48.4	496	51.6
	중도적	1,785	46.1	875	49.0	909	51.0
	진보적	1,127	29.1	627	55.6	501	4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0	16.0	311	50.2	309	49.8
	중하층	1,419	36.7	714	50.3	706	49.7
	중간층	1,639	42.3	826	50.4	813	49.6
	중상층 이상	195	5.03	116	59.5	79	40.5

주: '모름/무응답' 값은 제외하였음.

[표 3]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연속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젠더갈등인식의 평균값은 2.59점(4점 만점)이다. 응답자의 12.1%는 갈등이 매우 심하다, 41.3%는 대체로 심하다, 39.9%는 별로 심하지 않다, 6.8%는 전혀 심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인 53.4%가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의 평균값은 12.33점(20점 만점), 문항평균은 3.1점(5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성차별경험 수준은 5.63점(20점 만점), 문항평균은 1.4점(5점 만점)으로 낮았다.¹⁸⁾ 최근의 젠더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나 논의들(김보명, 2018; 박정훈, 2019; 신

18) 이 척도의 문항별 빈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①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경험은 남성의 16.5%, 여성의 24.4%가 경험했다. 경험 없음 응답비율은 20대 여성이 59%로 가장 낮았다. 20대 여성의 24.8%는 1년에 1-2회, 9.9%는 1달에 1-2회, 5.3%는 1주에 1-2회, 0.9%는 매일 외모 지적, 비하 발언을 경험했다. ②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표현경험은 남성의 34.2%, 여성의 46.2%가 경험했다. 20대 여성은 15.2%가 1

경아, 2017 외 다수)과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근 연구들이 청년 세대 또는 온라인상의 젠더갈등을 다룬 것과는 달리 전국의 성인남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성역할태도는 평균 11.78점(20점 만점), 문항평균은 2.3점(4점 만점)으로 다소 보수적이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평균값은 2.37점(5점 만점)이었다.

[표 3] 분석변수 기술통계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젠더갈등인식	2.59	0.79
젠더불평등인식	12.33	2.80
성차별 경험 정도	5.64	2.36
정치적 이념성향	3.05	0.83
주관적 소득계층	2.37	0.82
성역할태도	11.78	2.47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젠더갈등 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성역할태도	젠더불평등 인식	성차별 경험
젠더갈등인식	1				
주관적 소득계층	.029	1			
성역할태도	.149**	.086**	1		
젠더불평등인식	.139**	-.140**	.167**	1	
성차별 경험	.131**	.047**	.123**	.249**	1

p<.01 *p<.001

[표 4]는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평등한 성역할태도, 높은 젠더불평등인식, 빈번한 성차별경험이 종속변수인 젠더갈등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의 경우, 낮은 주관적 소득계층, 평등한 성역할태도, 빈번한 일상생활 성차별 경험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차별 경험의 경우, 높은 주관적 소득계층, 높은 젠더불평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과 젠더불평등 인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이 취업, 승진, 임금, 회사 및 가정 내 역할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면관계 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1-2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운전, 대중교통 이용 시 욕설, 무시, 비하경험은 남성의 28.5%, 여성의 31.9%가 경험했다. ④ 가사, 돌봄노동 강요는 여성의 22.1%가 경험한 데 반해 남성은 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표 4]의 결과와 유사했고 젠더갈등인식, 성역할태도,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 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의 크기가 더 컸다. 남성의 경우, [표 4]의 결과와 상이했다. 젠더갈등인식이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과 젠더갈등인식 간에 상관관계($r_{값}=0.046, p < .05$)가 있었고, 성역할태도와 젠더갈등인식 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의 크기가 더 컸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관계검증은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성별차이에 대한 평균비교분석(ANOVA)

젠더갈등인식의 영향요인 분석과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 경험, 정치적 이념성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젠더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고, 일상생활 성차별 경험빈도가 높았으며, 정치적 이념성향은 중도보수에 약간 더 가까웠다. 이 결과는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 수준과 성차별 경험수준이 젠더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젠더갈등인식과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주요 변수의 성별 차이 분석(분산분석)

	남성		여성		t/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젠더갈등인식	2.58	0.79	2.60	0.78	0.80
젠더불평등인식	11.93	2.74	12.74	2.80	82.14***
성차별 경험	5.32	2.00	5.97	2.65	73.87***
정치적 이념성향	3.09	0.84	3.01	0.81	2.99***
주관적 소득계층	2.39	0.83	2.35	0.80	1.44
성역할태도	11.77	2.42	11.78	2.51	0.003

p<.01 *p<.001

[표 6]은 응답자 특성별로 남녀의 젠더갈등인식수준이 얼마나 상이한지, 성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20대, 비혼, 비취업자, 수도권 거주자, 대졸 이상이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여성의 경우, 20대, 비혼, 수도권 거주자, 보수와 진보가, 중하층이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표 6] 응답자 특성별 남녀 젠더갈등인식 평균비교분석(분산분석)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연령대	20대 이하	2.77	0.85	32.48***	2.73	0.86	10.90***
	30대 이상	2.52	0.77		2.57	0.76	
결혼경험	없음	2.70	0.83	26.68***	2.71	0.83	10.45***
	있음	2.51	0.77		2.57	0.76	
취업여부	비취업	2.66	0.79	5.33*	2.60	0.80	0.01
	취업	2.56	0.79		2.60	0.77	
거주지역	비수도권	2.54	0.79	3.75*	2.56	0.73	5.38*
	수도권	2.61	0.80		2.64	0.83	
교육수준	고졸 이하	2.54	0.78	4.16*	2.58	0.76	1.70
	대졸 이상	2.62	0.80		2.63	0.81	
정치적 이념성향	보수적	2.59	0.75	0.49	2.71	0.81	10.23***
	중도적	2.56	0.81		2.52	0.73	
	진보적	2.60	0.81		2.64	0.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8	0.80	1.78	2.49	0.76	3.96**
	중하층	2.58	0.78		2.67	0.73	
	중간층	2.60	0.79		2.58	0.80	
	중상층 이상	2.61	0.91		2.63	0.97	

* p<.05 **p<.01 ***p<.001

2)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먼저,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 경험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인식 요인들이 젠더갈등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젠더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일상 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성별 자체는 젠더갈등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자체보다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성별이라는 정체성(identity) 자체보다는 성별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인식을 통해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젠더갈등인식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맥락에 기인한다는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별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

용하는지 다음 분석에서 검토할 것이다.

[표 6]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전체)

구분	변수명	모형1		
		β	t	
독립변수	젠더불평등인식	0.098***	5.753	
	성차별 경험	0.080***	4.699	
통제변수	성별	-0.004	-0.222	
	연령대(20대/30대이상)	-0.055*	-2.365	
	결혼경험	-0.043+	-1.841	
	취업여부	-0.008	-0.443	
	거주지역	0.023	1.427	
	교육수준	0.026	1.510	
	정치적 이념성향	보수	0.089***	5.123
		진보	.019	1.090
		주관적 소득계층	0.018	1.093
		성역할태도	0.115***	6.878
adj. R ²		0.056***		

+p<.10 * p<.05 **p<.01 ***p<.001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연령대, 정치적 이념성향,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앞서 최근 젠더갈등 현상을 20대 청년의 문제로 규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전체 성인 중 20대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성역할태도는 예측한 대로 성역할에 대해 평등하고 진보적인 인식을 할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한편, 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앞서 선행연구들은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에 더 민감하다고 했고, 젠더갈등인식에 대한 정치적 이념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한 Lee(2019)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보수적일수록 여성은 자유주의에 가까울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중도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추후 보다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최근 증폭된 젠더갈등 현상과 이슈들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표 6]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의 젠더갈등인식 수준이 2.71점으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남녀 모두 정치적 보수성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50대가 20대 다음으로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성별 조절효과 분석결과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두 변수 간에 성별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R²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 모두 성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에서 R²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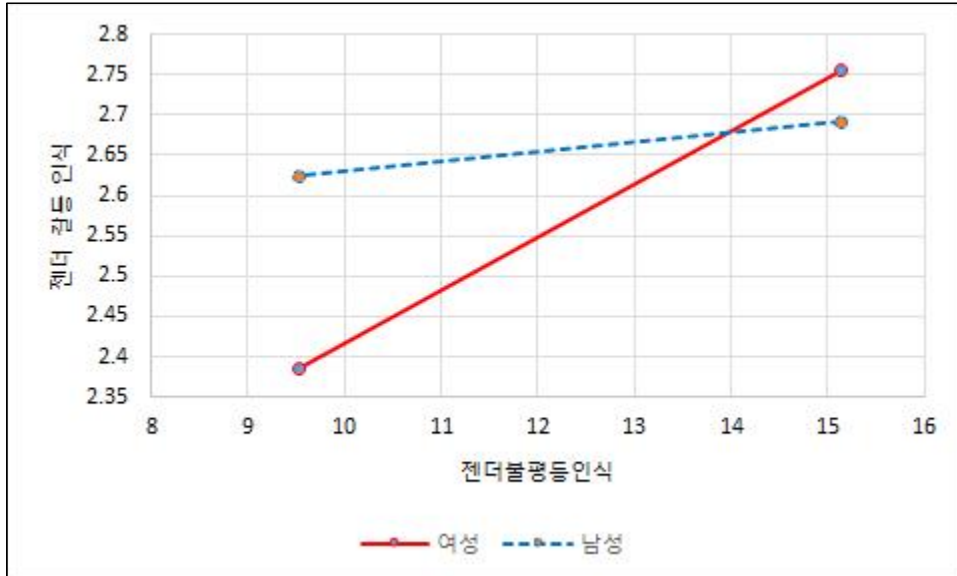
먼저, 젠더불평등인식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1과 비교해 젠더갈등인식 영향요인 분석에서 0.5%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가적인 설명력 개선을 나타냈다(R² = 0.061, R² 변화량 = 0.005, p<.001). 성별과 젠더불평등인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른 젠더불평등인식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남성의 경우 젠더불평등인식이 젠더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여성은 젠더불평등인식에 따라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 조절효과 분석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독립변수	젠더불평등인식	0.098***	5.753	0.025	1.090	0.094***	5.490	
	성차별경험	0.080***	4.699	0.071***	4.117	0.006	0.235	
조절변수	성별	-0.004	-0.222	-0.003	-0.168	-0.002	-0.138	
상호작용항	성별*젠더불평등인식			0.107***	4.650			
	성별*성차별경험					0.095***	3.590	
통제변수	연령대(20대/30대이상)	-0.055*	-2.365	-0.053*	-2.292	-0.050*	-2.180	
	결혼경험여부	-0.043+	-1.841	-0.044+	-1.908	-0.044+	-1.907	
	취업여부	-0.008	-0.443	-0.007	-0.389	-0.010	-0.588	
	수도권거주여부	0.023	1.427	0.021	1.289	0.025	1.504	
	학력_대졸이상	0.026	1.510	0.025	1.437	0.025	1.465	
	이념적 성향	보수	0.089***	5.123	0.089***	5.124	0.087***	4.973
		진보	.019	1.090	0.021	1.197	0.018	1.067
		주관적 소득계층	0.018	1.093	0.018	1.046	0.018	1.077
	성역할태도	0.115***	6.878	0.111***	6.676	0.113***	6.766	
adj. R ²	R ² 변화량	0.056***		0.061***	0.005***	0.063***	0.007***	

+p<.10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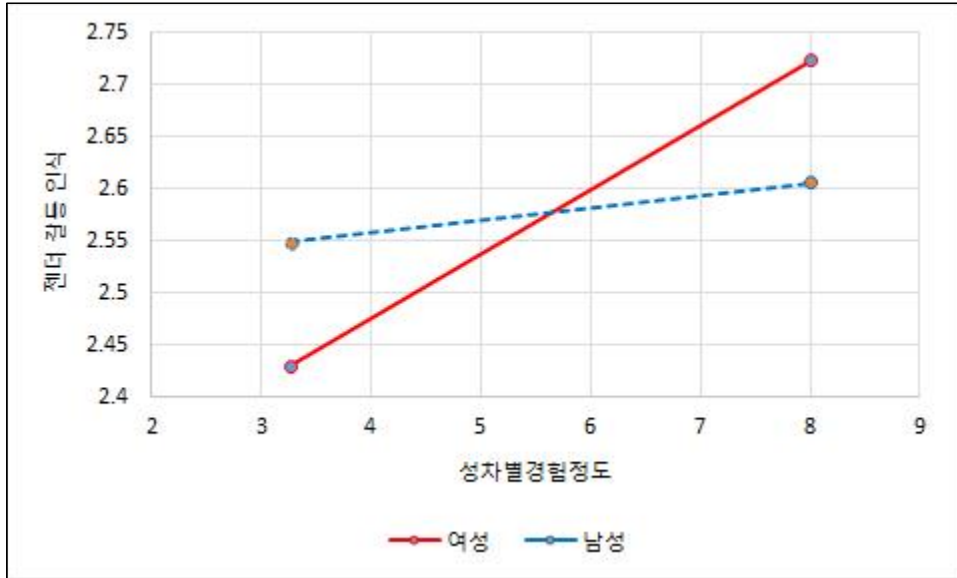
[그림 2] 젠더갈등인식에 대한 젠더불평등인식의 성별 조절효과 사후검증



[그림 2]는 성별에 따른 젠더불평등인식수준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젠더불평등인식의 평균치 ± 1 표준편차 값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 집단의 젠더갈등인식 수준 차이를 제시했다. 젠더불평등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 남성이 젠더갈등 수준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나, 젠더불평등인식 수준이 평균(전체평균 12.33) 이상으로 높아지면 여성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다음으로 성차별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모형 1에 성차별경험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은 젠더갈등인식 영향요인 분석에서 0.7%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명력 개선을 나타냈다($R^2 = 0.063$, R^2 변화량 = 0.007, $p < .001$). 남성은 성차별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여성은 성차별경험 정도에 따라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젠더갈등인식에 대한 성차별경험의 성별 조절효과 사후검증



성차별경험의 성별 조절효과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3]에서 사후검증 결과를 제시했다. 일상생활 성차별 경험 평균치 ± 1 표준편차 값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 집단의 젠더갈등인식에의 영향을 사후검증한 결과는 성차별 경험수준이 평균 이상이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함을 보여준다.¹⁹⁾ 전체 분석대상의 성차별경험 수준의 평균값은 5.63으로, 성차별경험척도에 포함된 4가지 경험(외모 지적·비하, 대중매체 성차별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무시·비하, 가사·돌봄노동 강요)에 대해 모두 경험이 없는 경우 4점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성차별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게서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 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확인한 다음 단계로 남녀 집단 간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녀 집단으로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은 여성들의 젠더갈등인식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직접적인 차별경험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젠더갈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남성들의 백래쉬(backlash) 현상이 직접적 차별경험과 무관하게 개인적 특성과 성향에 의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과도 연결된다.

19) -1표준편차값이 실제 존재하는 값이 아닐 수 있으나, 단순 기울기 검증법(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식화하여 보여 주기 위한 수치(± 1 표준편차 값)를 대입, Aiken & West, 1991; 김소정, 2016 재인용)을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9] 여성과 남성의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	변수명	여성		남성		
		β	t	β	t	
독립변수	젠더불평등인식	0.177***	7.200	0.026	1.127	
	성차별경험	0.135***	5.473	0.004	0.190	
통제변수	연령대(20대/30대이상)	-0.016	-0.470	-0.088**	-2.683	
	결혼경험여부	-0.033	-0.999	-0.044	-1.370	
	취업여부	0.003	0.147	-0.015	-0.614	
	수도권거주여부	-0.003	-0.144	0.041+	1.772	
	학력_대졸이상	0.003	0.133	0.058*	2.370	
	이념적 성향	보수	0.117***	4.826	0.058*	2.332
		진보	0.042+	1.740	-0.002	-0.101
	주관적 소득계층	0.026	1.100	0.007	0.287	
성역할태도	0.075**	3.137	0.149***	6.440		
adj. R ²		0.092***		0.043***		

+ p<.10 * p<.05 **p<.01 ***p<.001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젠더불평등과 차별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최근 상황과 같이 직접적인 차별경험과 무관하게 집단 내부에서의 낮은 상대적 지위로 인한 박탈감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성차별 경험과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로가 남성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상 20대, 30대 여성 비중이 낮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여성 비중이 높은 것도 젠더불평등 인식이 낮은 경우 남성에 비해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연령대 요인은 여성에게는 유의미하지 않고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는데, 20대 남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적 차원에서 확인했다. 20대와 30대를 청년세대로 묶어 변수로 투입했을 때는 전체모형과 여성 집단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성 집단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연령대 변수의 계수값이 작아졌다.²⁰⁾ 현재의 젠더갈등 문제를 청년이라는 특정세대의 문제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20) 전체 모형에서 연령대 구분을 30대이하/40대 이상으로 달리 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대 변수의 표준화계수값은 -.026(t=-1.199)였고, 여성 집단 연령대 변수의 표준화계수값은 .015(t=.616)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남성 집단 연령대 변수의 표준화계수값은 -.066(t=-2.144, p<.05)로 나타났다. 남성 집단 분석에서 30대 이하 연령으로 구분한 연령대 변수는 20대 이하 연령으로 구분한 연령대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도(p<.01->p<.05)나 계수값이 작아졌다(-.088->-.066)는 점에서 특정 세대 효과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이 겪는 군입대 등의 특정 경험과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젠더갈등 인식이 약화되는 것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대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직접적 차별경험과 인식과 무관하게 젠더갈등을 인식한다는 것은 박정훈(2019)도 언급했듯이 군입대, 취업의 어려움 등 특정 연령대가 겪는 경험과 연관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역할에 대해 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젠더갈등에 대해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지역 요인의 경우, 남성들만 유의수준 10% 수준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는 강남역, 혜화역 등 수도권 중심으로 젠더갈등 관련 시위와 백래쉬 행동이 일어난 것의 영향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남녀 모두 중도와 비교해 보수적 성향을 가질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수준이 10%이긴 하나 여성의 경우 중도와 비교해 진보적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와 비교해 진보와 보수 모두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이념과 젠더갈등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Lee(2019)의 연구에서는 정치이념을 연속변수(보수-중도-진보)로 설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젠더갈등인식에 대한 정치이념의 영향이 선형적일 수 없다고 보고 중도를 기준으로 진보, 보수 2개 변수를 투입해 분석했다²¹⁾. 그 결과 중도와 비교해 진보, 보수가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갈등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갖는 중도와 비교해 보수는 기존 사회질서(젠더질서)를 유지하고자, 진보는 이를 변혁하고자 사회갈등에 대해 동상이몽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젠더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누가 젠더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다양한 차원의 인식은 젠더갈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3.4%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했고, 그 중 12.1%는 매우 심하다고 인식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가시화되거나

21) Lee(2019)의 연구와 같이 정치이념을 연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그 영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주목받지 못했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군가산점 위헌판결 등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부각되긴 했지만,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젠더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2015년 전후 온라인, 매스미디어상의 젠더갈등이 일반 국민의 인식 속에도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요한 변수들의 성별 차이를 분석했는데, 젠더불평등인식 수준, 성차별 경험, 정치적 이념성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젠더불평등을 심각하게 더 인식했고, 일상적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정치적 이념성향은 중도보수에 약간 더 가까웠다.

셋째,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했는데, 젠더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연령대, 정치적 이념성향,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20대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역할에 대해 평등하고 진보적인 인식을 할수록, 중도성향과 비교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이 젠더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 분석했다. 독립변수로서 성별 변수는 젠더갈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흥미롭게도 조절변수로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즉, 현재의 젠더갈등은 불평등과 차별 경험의 젠더차이, 그 경험에 대한 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의 차이가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금까지 부분적·현상적으로만 경험되던 젠더갈등 현상에 대해 특정 지역과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젠더갈등 인식 수준과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5년 전후 증폭된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 현상의 기저에는 사회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 일상적 성차별 경험 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젠더갈등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젠더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셋째, 인구학적인 '성별'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젠더불평등과 그로 인한 일상의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젠더'가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성별은 그러한 사회적 경험과 인식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젠더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성별에 따라 상이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우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일상에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평등하고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성차별 해소, 성평등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 표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표출되지 못하고 내재된 인식과 현실의 괴리는 여성 개인의 정신건강, 자아정체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젠더불평등과 일상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규범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젠더불평등인식과 성차별경험과 무관하게 연령대,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젠더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현존하고 있는 젠더불평등구조와 차별현실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그 자체로 젠더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향후 역차별 인식 등 백래쉬(backlash) 현상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통해 젠더갈등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을 규명했는데, 이것이 젠더불평등에 대한 낮은 이해도,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는 것인지 생애주기와 맞물린 연령효과 때문인지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의 젠더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합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젠더갈등과 젠더갈등인식의 다양한 차원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2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젠더갈등은 권력관계, 자원배분, 제도, 구체적 이슈,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젠더갈등인식 역시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젠더갈등의 원인,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에도 젠더갈등의 원인, 해결방안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인범주에 포함된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조장, 가부장적 사회문화는 상호배타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미흡해 분석변수로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 젠더갈등인식 연구에서는 역차별 인식, 박탈감, 페미니스트 정체성,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등 현재의 젠더갈등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 젠더갈등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갈등해소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 계층, 지역, 정치이념 등의 범주와 젠더의 교차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보명(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1), 1-31.
- 김소정(2016). 기혼 직장인들의 일가족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201-226.
-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정훈(2019). 20대 남성 지지율에 파묻힌 젠더문제의 본질. *황해문화*, 2019. 6, 208-223.
- 박준, 정동재(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한국행정연구원*.
- 변화순, 장혜경, 김혜영, 전영주, 정재동, 구선영(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서문기(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손희정(2015). 페미니즘 리부트-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93, 14-47.
- 송복(1997).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경문사.
- 신경아(2017). 젠더 갈등의 사회학. *황해문화*, 2017. 12, 16-35.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나영(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72.
- 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2006).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이윤정(2019).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강원법학*, 56, 169-206.
- 이재경(2013). 한국사회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저스티스*, 2013. 2, 94-109.
-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4(2), 99-146.
- 정승화 (2018). 누가 페미니즘을 모함했나? 백래시에서 시장 페미니즘까지. *한국여성학*, 34(2), 179-187.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201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은혜, 백영민(2018). 미투운동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지지받는가?. *한국언론학보*, 62(6), 37-65.
- 천정환(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2016. 8, 353-38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CA: Sage.
- Bobbio, A., Canova, L., & Manganelli, A. M. (2010). Conservative ideology, economic conservatism and causal attributions for poverty and wealth. *current psychology*, 29(3), 222-234.

- Bouta, T., Frerks, G., & Bannon, I. (2004). *Gender, conflict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Chodorow, N.(1979). Feminism and difference-gender, relation and difference in psychoanalytic perspective. *Socialist Review*, *9(4)*, 51-70.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Mahwa, NJ: Erlbaum.
- Conover, P. J. (1988). The role of social groups in political think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1)*. 51-76.
- Duckitt, J., Wagner, C., Du Plessis, I. & Birum, I. (2002). The psychological basi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75-90.
- Gamson, W.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pta, M. & Shuzhuo, L. (1999). Gender bias in China, South Korea and India 1920-1990: Effects of war, famine and fertility decline. *Development and Change*. *30(3)*. 619-652.
- Lee, Sabinne (2019). Gender conflict perception and social identities: in backlash phenomenon. *Asian Women*. *35(2)*. 1-24.
- Raider, E., Susan, C. & Gerson, J. (2006).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Sherif, M. (1966). *In common predicament: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Gender Conflict Perception in Korea: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Yunkyu Ryu* & Young-Mi Kim**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gender conflict perception in Korea, where amplifying gender conflict has been experienced rec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gender conflict perception are gender inequality perception, experiences of sexual discrimination, conservative ideology, and young generation of twenties. Secondly, gender is a moderator of gender inequality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discrimination. Women perceive more gender conflict as they perceive more gender inequality or experiences more sexism. On the other hand, men perceive more gender conflict as they are in 20s while gender conflict percep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veal the factors of gender conflict perception are gender conflict percep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to settle the gender conflict being differed by gender.

Keywords: gender conflict perceptio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 2019. 10. 31. 접수 / 2019. 12. 8. 1차수정 / 2019. 12. 16. 게재확정

* Associate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yqryu@stu.ac.kr)

**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Welfare (dezember26@gdsu.dongseo.ac.kr)